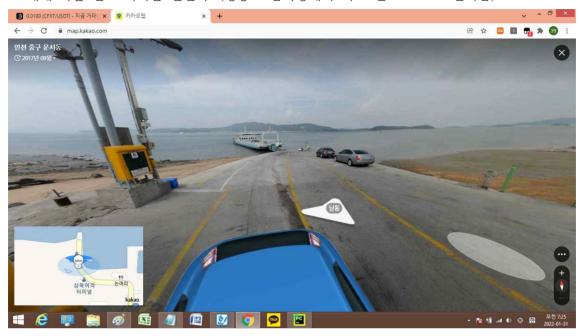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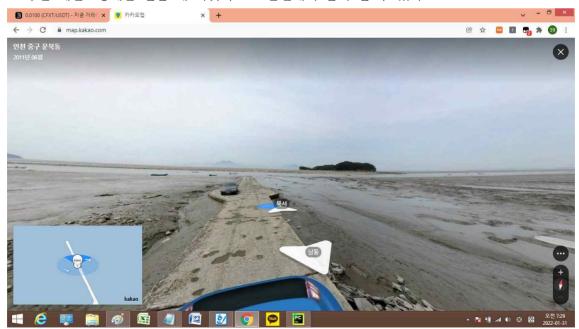
멋진 드라이브길 안내할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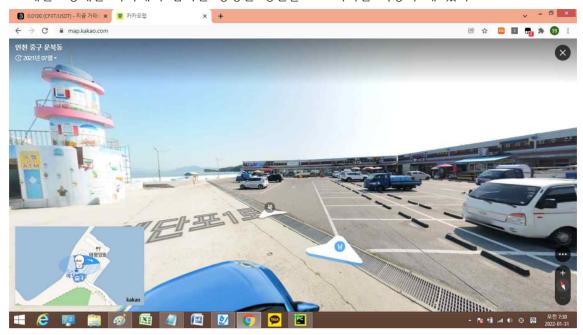
1. 배에 차를 싣고 바다를 건넌다. (영종도 삼목항에서 시도 신도 모도로 건너감)



- 2. 신도 시도 모도 3개의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차로 다닐 수 있다. 영화촬영지 배미꾸미 박물관 등이 있어 구경거리 있다.
- 3. 부근 예단포항에는 썰물 때 바닷속으로 운전해서 들어 갈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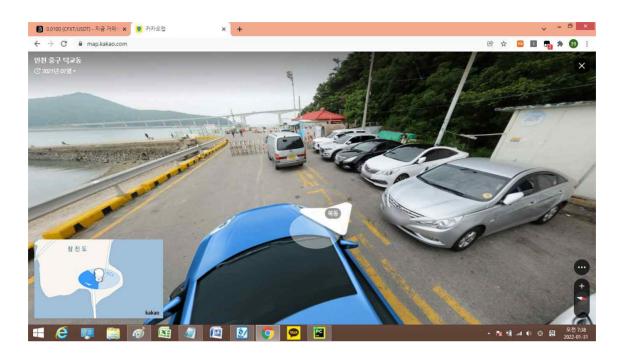
4. 예단포항에는 바다에서 잡아온 싱싱한 생선들로 요리하는 식당이 꽤 있다.



5. 인천공항 뒤편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용미리 해변과 식당 카페 들을 볼 수 있다.



6. 잠진도항에서 무의도까지 해상다리를 건널 수 있다. 엄청 높고 멋진 다리라서 무서울 수도...(사진에 멀리 보이는 높은 다리)



7. 마무리 커피 한 잔은 바다길을 걸어서 섬이야기박물관을 보고서...



차는 대무의도 광명항에 두고 걸어서 소무의도로 건너간다.



